

Good things*

FREE

Market-m* Life style magazine

2014 Winter



Good Story

- 04 Travel 영국, 런던 여행기 Be a Londoner!
- 22 Brand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 문구 브랜드, 공장_gongjang

Good Info

- 32 Play 온도를 높이는 그윽한 향기, 향초 만들기
- 38 Taste 겨울이면 생각나는 맛
- 40 Movie 기나긴 겨울밤 보내기
- 42 Music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노래

Good Place

- 46 Place 압구정, 르 알래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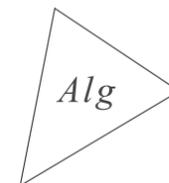


발행 엠퍼블리싱 ISSN 2288-4343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3길 5 (통인동 118-10) 대표전화 02 325 4769 팩스 02 335 4769
 발행인 이현우 기획 이현아 편집·디자인 김희진 사진 김소영 번역 복진하 인쇄 인쇄메이드 홈페이지 www.market-m.co.kr
 광고 및 배포처 신청 help@market-m.co.kr

Market m*이 만든 출판사인 <엠퍼블리싱>의 Good things*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무료 배포되는 기간지로 전국 각 도시 중심거리의 카페, 샵, 레스토랑 등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arketm_life blog www.marketm-life.com www.facebook.com/marketm.life

Good things* by TMC INTERNATIONAL INC. Copyright © 2014 All rights reserved.
 굿띵즈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주)티엠씨 인터내셔널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lg Analog life는, 마켓엠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의류 브랜드입니다.
 100% 오가닉 코튼을 이용하여 호주에서 생산한 아기옷부터 아동, 성인남녀 의류까지 심플하고 편안한 느낌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여유로운 호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Alg 제품을 통해 경험해보세요.

Be a Londoner!

추운 날씨에 몸은 끔찍 얼었지만 여행에 대한 의지만큼은 여름 별처럼 활활 타오르던 어느 날,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 다니는 여행도 좋지만, 실제 런던에서 살고있는 런던 처럼 그들의 일상 속에 자리잡은 소소하지만 런던의 색이 묻어나는 거리를 걸어보았다.





PM 02:30

인천공항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여 약 12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보낸 후,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니 런던은 오후 5시 50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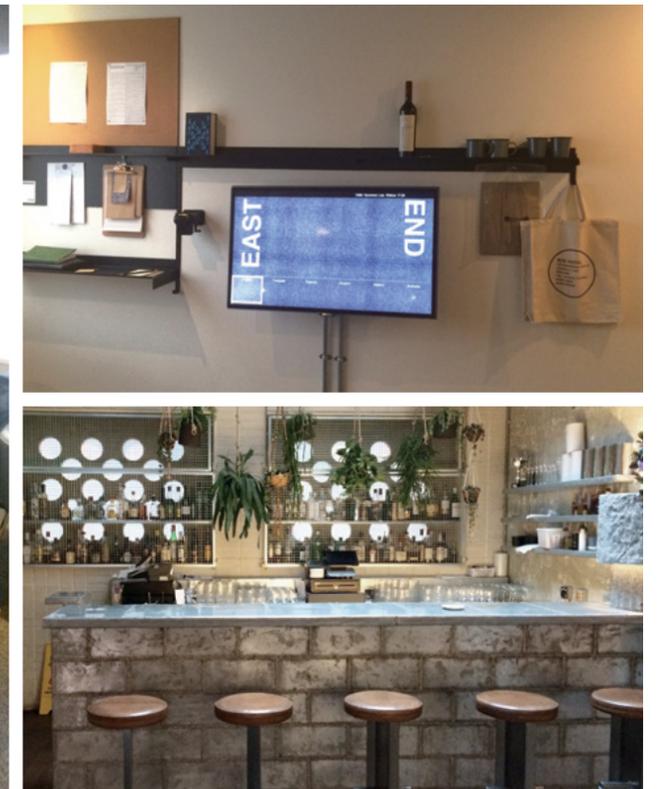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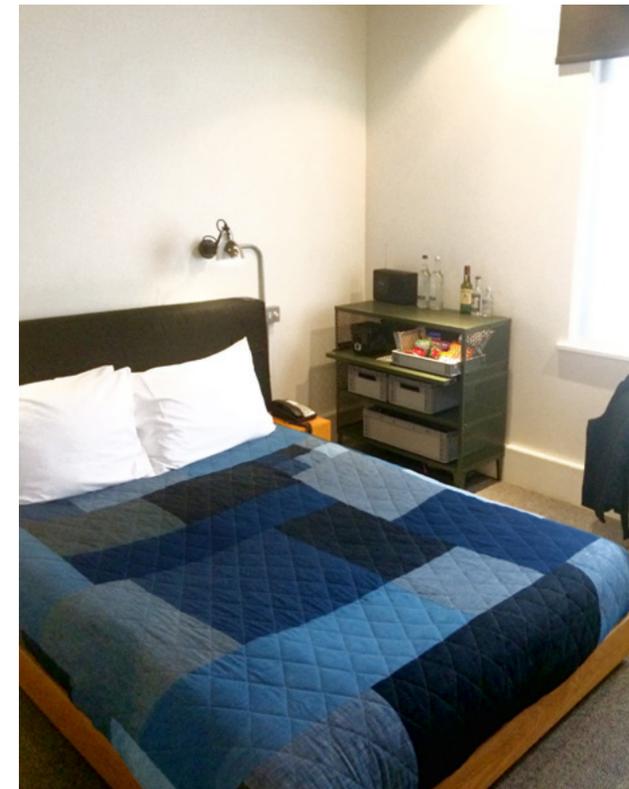
TIP Time & Weather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런던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9시간 느리며(썸머타임 8시간) 기후는 온화한 편이지만 비가 오락가락하기도 한다.



PM 07:30

공항에서 바로 쇼디치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소로 잡고 긴 비행에 지친 피로를 풀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호텔 곳곳에 숨겨진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TIP Shoreditch
 과거 빈민가로 알려진 쇼디치 지역은 아티스트들이 하나 둘 자리잡기 시작하며 이제는 런던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AM 11:00

토요일 아침, 여러 주말시장들을 찾아 나섰다.
빈티지 옷부터 신진 디자이너 제품, 유기농 과일과
핸드메이드 케이크를 파는 노점 등으로 가득한 브로드웨이 마켓에 들러 구경을 했다.
런던 필즈 공원을 지나다 마주친 요가 수업은 주말의 여유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TIP Broadway Market

Address Broadway Market, London E8 4PH
Open Sat 08:30 - 16:30
Homepage www.broadwaymarket.co.uk



PM 01:00

버몬지역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주말 시장인 몰트비 스트리트 마켓을 구경했다. 몰트비 스트리트 철로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평소에 목공소, 욕실용품 매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토요일에는 레스토랑, 커피숍 등의 개성있고 생기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각종 베이커리, 커피, 로컬 음식 등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점점 유명세를 얻기 시작해 런던 사람들에게 베스트 마켓으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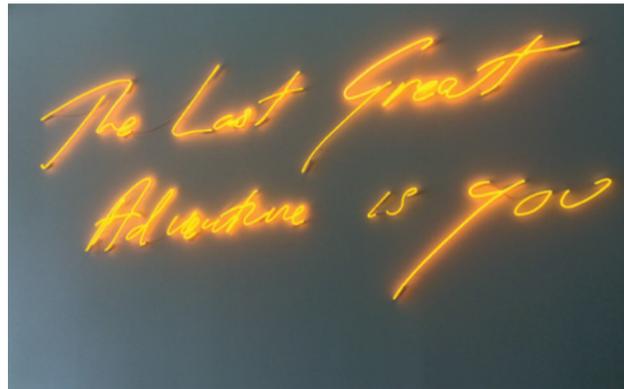
TIP Maltby street market

Address Ropewalk, London SE1 2HQ
Open Sat 09:00 - 16:00
Homepage www.maltby.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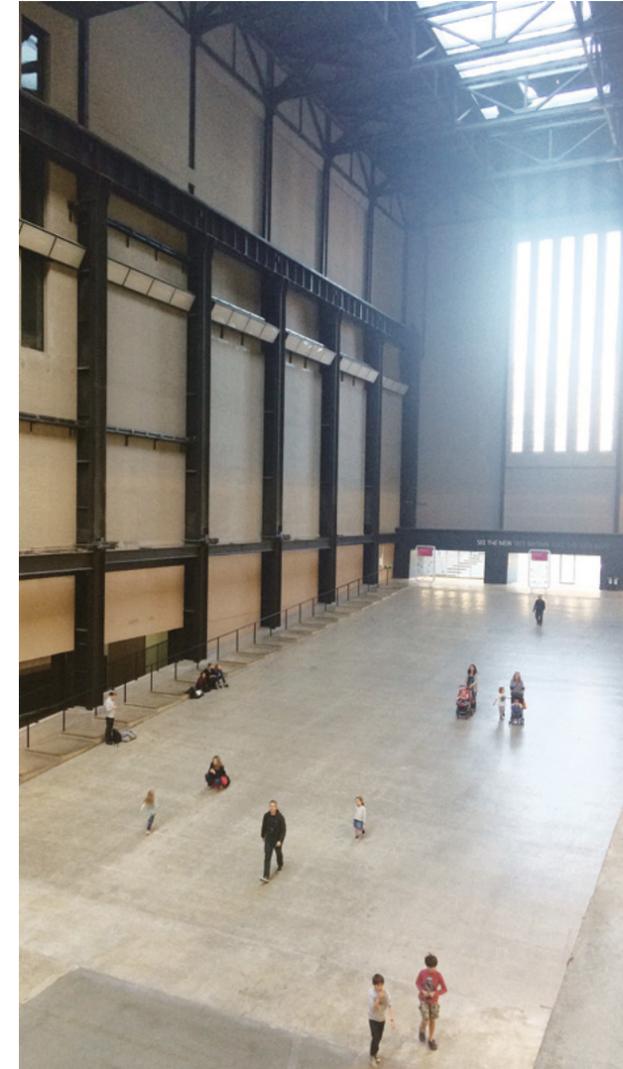
콜롬비아 로드 마켓은 가드닝을 좋아하는 현지인들이 주말마다 방문하는 플라워 중심의 마켓이다. 꽃을 파는 거리 뒤편으로는 가드닝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들이 있으며, 곳곳에 위치한 카페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향기로운 일요일 아침을 만끽하기 좋은 곳이다.

TIP Columbia Rd. Flower market

Address 3 Ezra Street, London E2 &RH
Open Sun 8:00 - 13:00
Homepage www.columbiaroad.info



White Cube Gallery



Tate Modern



PM 03:00

런던의 개성있는 갤러리들 중에 화이트 큐브 갤러리와 테이트 모던을 찾았다.

화이트 큐브 갤러리는 영국의 유명한 아티스트인 데미안 허스트와 트레이시 에민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주로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규모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갤러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테이트 모던은 화력발전소 공간을 현대미술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전시를 역사화, 정물화 등 주제별로 작품을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TIP

White Cube Gallery

Address 48 Hoxton Square, London, N1 6PB
 Close Mon / Sun
 Homepage www.whitecub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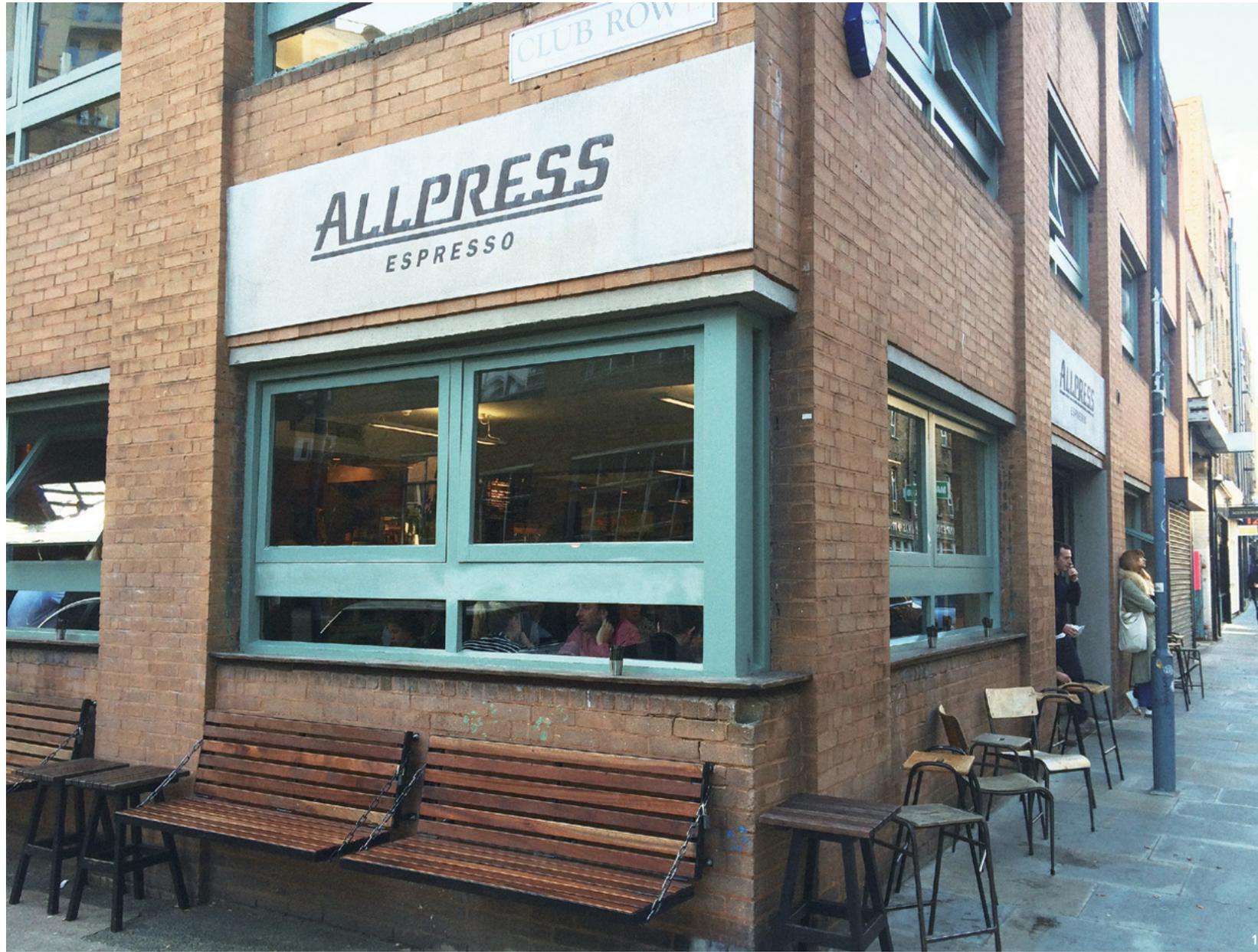
Tate Modern

Address Bankside, London SE1 9TG
 Close 12/24 - 26
 Homepage www.tate.org.uk



PM 04:00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런던 곳곳의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 샵들을 방문했다.



PM 06:00

Allpress의 커피는 풍미가 가득했고

바운더리 호텔 1층에 위치한 유기농 카페, Albion에서 판매중인 디저트는 구경만으로도 즐거웠다.

프랑스 스타일의 브런치 카페 Maison trois garcons와 더불어

개성있는 베이커리와 카페, 레스토랑들을 둘러보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1. 레드처치 스트리트의 유명한 커피 전문점, Allpress

2. 레드처치 스트리트, Maison trois garcons

3. 바운더리 호텔 1층 유기농 카페, Albion

4. 에디션 호텔 1층, Berners tavern의 피쉬 앤 칩스



PM 07:00

우리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때, 주로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하지만 가끔은 관광객이 아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처럼 주말에 외출하듯 가볍게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
꽤 찬 스케줄이 아니기에 여행의 피로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놓치는 소소한 것들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다.



GREENDESIGN WORKS gongjang™

최소한의 디자인을 추구하며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 문구 브랜드 gongjang의 인터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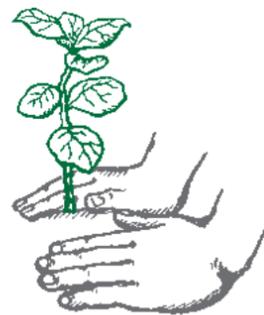
This is a brand interview with a design stationary brand, gongjang, that seeks for minimal design and cares about the environment first.



Info

공방에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물건을 만드는 장소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공장_gongjang은 군더더기 없는 최소한의 디자인을 추구하고, 제품생산에서 사용,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디자인영역 안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

공장_gongjang에서는 재생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한 노트와 플래너 등의 문구류를 비롯하여 최소한의 공정으로 제작하는 카드케이스, 가방 등 다양한 생활소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자연을 담은 질감과 색감, 동양적인 감성을 담아 편안함과 따뜻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구 브랜드 공장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장은 지류 제품과 여러가지 소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최소한의 디자인을 추구하고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통해 자연을 담은 질감과 색감, 동양적인 감성을 담아 편안함과 따뜻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Please introduce us about the stationary brand, gongjang.

gongjang is a company that designs paper products and various small items their own. We look for minimal design without additional uncessesity, and care about the environmental dur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Moreover, we try to deliver the cosines and warm heart by using natural texture & colors and oriental sense.



어떤 계기로 그린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2004년 즈음 어느 세미나에서 국민대학교 그린디자인과 '윤호섭' 교수님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결정과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환경문제를 인식하면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가 이제는 몸소 느껴질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 제품디자인 영역에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지 사용, 공기름잉크로 인쇄, 종이의 버리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한 제품의 크기 설정 등 제품을 만드는 전반적인 면에서 디자이너가 환경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 메시지를 직접 제품에 넣어 소비자들에게 전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제품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그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How did you begin to have attention to green design?

Around 2004, I attended a lecture of Prof. Ho Seob Yoon,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Green Design in Kookmin University, about a role of designers for the environment. The lecture was about "a designer gives an influence on design element and process, so that a designer can help to minimize the harmful impact on the nature in the end as long as the designer acknowledg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round the worl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became to be acknowledged, so I started to find the way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in my design area.

Surprisingly I found out that there were many actions that I could take for the environment such as use of recycled paper, soybean oil printing, reducing paper waste. Also, I could attach messages on the products to promote and share the thought I had with customers. By gathering my design products containing my eco-friendly thought, my concept became pay more attention to Green naturally.

공장이 추구하는 친환경적인 문구제품이란 어떤 것인가요?.

제조 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폐기하기까지, 제품의 수명 전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of eco-friendly products that gongjang think of?

Eco-friendly product indicates that products that has minimum harmful impact on the environment; therefore, I am trying to consider the eco-friendliness from the beginning of the manufacturing steps to the end of users' usage (till they throw out the product).

제품마다 평가되는 그린라벨이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자가적으로 환경성을 진단하는 에코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여러 디자인 분야 중 특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환경에 대한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디자인이 결정되면 그 디자인은 많은 수량의 제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소재의 선택, 생산과정, 그리고 그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제품 수명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다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선택,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 설정, 생산과정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리필, 재사용이 가능하고 폐기가 용이한 구조 등 모든 과정은 디자이너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디자이너의 역할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제품의 환경성을 자체 진단하는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 제품의 환경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 전 단계부터 제조, 수송, 사용, 폐기 단계로 나누어 각 환경성을 단계별로 점수를 주고, 총 합계점수에 따라 1~3단계로 나누어 그린라벨을 부여합니다. 이는 좀 더 환경에 가까운 제품을 디자인하자는 공장의 다짐과 의지입니다.

The green label for evaluation that is on each product What was the standard of evaluating eco-friendly products' degree, called eco list?

In the design industry, especially a product designer has a big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because one designed product will be mass-produced.

Therefore, if a designer cares about the environment in the selection of material, manufacturing process and product life cycle, the negative impact on the nature will be minimized.

A designer can make an effort on selecting eco-friendly material, size measurement for efficient usage, energy saving on the production line, establishing refilling & recycling availability and easiness of disposal.

I think this is one of the roles of designer and their responsibility.

We made an evaluation list to evaluate the degree of eco-friendliness on each product several years ago, so that we could make even more environmental friendly products.

We made 5 steps; pre-manufacturing,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use, and disposal, and give scores on each level. Based on the total score, all products are classified into three levels, and we attach green label on each product. This shows gongjang's will and promise to make products that are more environmental friendly.



ECO LIST	
제조전 단계	제품의 유용성 Product Utility
Preproduction	환경메세지 전달 Green Message Communication
제조단계	소재의 친환경성 Eco-friendly Material
Production	소재의 사용율 Material Employment Rate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Energy Use Efficiency
	무게, 부피 최소화 Weight/Volume Minimization
	포장의 최소화 Package Minimization
수송단계	운반, 적재의 효율성 Transport / Storage Efficiency
Transport	공급의 수송 효율성 Supply Transport Efficiency
사용단계	리필, 재사용율 Refill/Rate of Reuse
In Use	제품의 수명 Product Life
폐기단계	제품의 분리성 Product Dissolubility
Disposal	소재의 재활용성 Material Recyclability
	포장재의 친환경성 Eco-friendly Packaging
합계	매우낮음(0) 낮음(1) 보통(2) 높음(3) 매우높음(4)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사용하는 사람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이 많이 되어있는 제품은 사용자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용자에 의해 디자인이 완성될 수 있게 최소한의 디자인만 하고 있습니다.

What is a matter of primary consideration when you design products?

My primary consideration on designing is effectiveness of products to use. Sometimes too much design element may causes inconvenience to users, so I minimize the design element and make users to complete the final design as they use the product.

최근 에코디자인을 컨셉으로 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지키기 이전에 자신을 건강하게 가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에서 건강한 디자인과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알고 난 뒤 디자인을 해야 환경적으로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줄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디자인상에서 조율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과 소중한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These days, there are many the new brands and products with eco-design concept coming out. As a designer, what are they can

do to save the environment?

Before we try to save the environment, we need to take care of our health first, because god design comes out from healthy mind and body. Also, we need to understand the manufacturing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n order to save the environment. Eliminating unnecessary manufacturing processes and modifying and adjusting in the designing process will lead to effective energy use and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기업, 단체와 함께 아트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주세요신다면?

최근에는 이응노 미술관에서 이응노 화백의 작품으로 문구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북부산림청 친환경 달력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아대책의 크리스마스 카드도 제작 중입니다.

You are developing art products with other corporate and organizations. Could you explain us about it?

We are working with various organization and groups every year. In this year, we created stationary series with Eung No Lee's pieces in the LEE Eung No Art Museum. Currently we are designing eco-friendly calendar with Northern National Forest Administration, and preparing Christmas Card with Korea Food for the Hunger International (KFHI).



Balance planner



퍼투리 명명



북부산림청 친환경 달력



이응노 미술관 문구 시리즈



다양한 해외국가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만나볼 수 있나요?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유명한 샵 중 하나인 merci에 우연히 들러 노트 하나를 주고 온 것이 계기가 되어, merci 담당자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호주, 영국, 스페인, 러시아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Gongjang is getting a continuous attention from other overseas countries, where we can meet your products?

Not long ago, I went to Paris for trip. I stopped by one of famous shops in Paris, merci, and gave them a note of gongjang. After that, a representative of merci visited us to Korea, and I think this was a very interesting episode. You can see our products on U.S.A, Australia, England, Spain and Russia.

그동안 마켓엠과 다양한 경로로 파트너십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켓엠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은 어떠했나요.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샵에 가면 그러한 분위기를 더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켓엠에서 함께하는 SIWA, P.F.S, CLAY SHOP 등의 브랜드들을 보며 점점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ou have made a partnership with market m* and other reason.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market m*?
 My first impression of market m* was a brand made warm and amiable design products, so that everyone could use and approach. Actually, I was able to feel that warm atmosphere when I visited its offline store. Moreover, when I have seen other cooperating brands including SIWA, P.F.S, CLAY SHOP, I have thought that this brand was keep making a much better brand itself.

공장이 벌써 10주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종이로 대부분의 제품을 디자인했다면 앞으로는 종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로 만드는 친환경 제품에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좋은 제품들로 전시회를 열 예정이며, 변함없이 환경을 생각하고 더 많은 분들께 편안함과 따뜻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It is the gongjang's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What is your future plan for 10 years coming up?

Until now, most of our products are designed with paper material, but I want to start to make eco-friendly products with other materials as well. I guess the bag that I made for the first time not with paper material gave me confidence. Also, I am planning to hold an exhibition when I have more good products. I want to improve and grow up step by step.



인터뷰에 응해주신 gongjang의 박현정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We want to say thanks to Hyunjung Park, the representative of gongjang.

Analog life by Market m* & GREENDESIGN WORKS **gongjang™**

New arrival!



심플하고 유니크한 스크랩북 Scrap_B

사진첩, 스크랩북, 포트폴리오, 메뉴판, 레시피북 등 여러가지 테마로 나만의 책을 만들어보세요.
 7각형이 새겨진 표지를 열면 산뜻한 인트로 페이지를 만날 수 있으며, 뚝뚝있는 7각형 사이로 이미지를 넣어 표지를 꾸밀 수 있습니다.
 30매(인트로 페이지 포함)의 아이보리색 내지(200g)와
 엽서, 명함, 사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튼튼한 봉투, 95개의 코너스티커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www.gongjangs.com

GREENDESIGN WORKS **gongjang™**

Only at Market m*

* 오리지널 브랜드와 더불어 독점 또는 공식 수입하여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마켓엠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Original Brand



MARKET&BISTRO FURNITURE

마켓엠의 원목가구 및 소품 브랜드입니다. 원목가구는 오랜시간 함께 할수록 자연스러운 멋이 더해지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그 사람의 시간, 공간과 함께 어우러지며 존재합니다.



Wednesday 71

마켓엠의 핸드메이드 소품 브랜드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자연과 함께 보내며 여유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물들과 함께 생활 공간 속에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안합니다.



Analog life

마켓엠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의류 브랜드입니다. 100% 오가닉 코튼을 이용하여 호주에서 생산한 아기옷부터 아동, 성인남녀 의류까지 심플하고 편안한 느낌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FUTAGAMI

시간이 흐를수록 멋스러운 황동을 주소재로 조명, 후크를 비롯하여 문진, 문구 트레이 등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일본의 금속 공예 브랜드



hum

HIGHTIDE사와 일본의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집단 grafi가 함께 선보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하기 위한 아이템을 만드는 문구 브랜드



JICON 磁今

일본 최대의 도자기 산지 아리타의 Touetsugama사와 디자이너 오지 마사노리가 함께 시작한 일상 속에 조화로운 생활 도자기 브랜드

Imported Brand



PACIFIC FURNITURE SERVICE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인테리어 시공 및 가구와 생활 소품을 디자인하며, 해외 오리지널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라이프 스타일 셀렉트샵



WIRED CAFE Music Recommendation

일본의 대표적인 카페 브랜드 Cafe company에서 직접 기획하여 재능있는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컴필레이션한 다양한 컨셉의 편집 음반



CLAY SHOP The original design ceramics

사기제품 생산지로 유명한 태국 람팡에서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선보이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제품 브랜드



nasta

일본의 크리에이티브 그룹 MTDO inc가 디자인하며, 보다 즐겁고 스타일리쉬한 가사생활을 위한 세탁 관련 브랜드



ARTWORK STUDIO INTERIOR PRODUCTS

조명과 더불어 시계, 스위치플레이트 등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을 선보이는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회사



LYON

철재를 소재로 한 고품질의 보관함, 산업용 저장 및 작업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1901년에 설립된 미국의 제품 제조 회사



高橋工藝

천연림을 이루고 있는 홋카이도의 목재를 사용하여 나무가 가진 본래의 색상과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적인 테이블 웨어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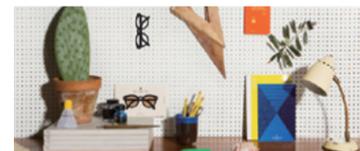
RE-STANDARD PALM GRAPHICS DESIGN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인 문구 회사인 HIGHTIDE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로 친환경 소재와 가공방식을 사용하여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문구 브랜드



SIWA 紙和 Design by Naoto Fukasawa

제지회사 ONAO와 산업 디자이너, 후카사와 나오토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오로' 소재를 사용한 가방, 지갑 등을 선보이는 생활용품 브랜드



OCTAEVO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선명한 컬러감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디자인 문구 브랜드



HAPPY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텍스타일 제품을 비롯하여 주방용품, 악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스웨덴의 제품 디자인 브랜드

Other business activities



Jieldé

명료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조명 브랜드
www.jielde-korea.com

온도를 높이는 그윽한 향기 향초 만들기

추운 날씨 탓에 밖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따뜻하고 아늑해 좋긴 하지만 집에 가만히 있다보면 몸이 처지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럴때,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윽한 불빛과 함께 공간에 은은한 향기를 퍼뜨려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향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직접 만드는 재미도 있고 완성된 향초로 분위기를 연출한 우리집에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즐겨도 좋을테니 말이다.

글·사진 김희진 장소·소품 협찬 al, thing





재료 준비

90ml 용기, 소이왁스 70-90g, 프래그런스 오일 8ml (소이왁스의 8-10%)
 나무심지, 심지 탭, 비커, 핫플레이트, 저울, 심지가위, 유리컵, 온도계, 테이프

TIP

소이왁스

소이왁스는 파라핀에 비해 연소시간이 길고 수축이 적어 만들기가 쉽다.
 또한, 그늘음이 적고 깨끗하게 연소되며, 천연 왁스로 유해 물질로 부터 자유롭다.

프래그런스 오일

일부 천연향과 화학물질을 배합하여 인공적으로 생산해낸 오일이다.
 향을 첨가하는 목적으로 쓰이며, 다양한 향을 구현해 낼 수있다.
 향이 강하고 지속력이 높은 편으로, 양초공예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향초 만드는 방법

- 01 나무심지를 심지탭으로 고정하고 테이프를 이용해 용기 바닥에 고정시켜 준다. (이때, 나무심지는 왁스 위로 3mm정도 올라오게 미리 잘라 준다.)
- 02 소이왁스를 가열이 가능한 비커에 넣고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녹여준다. (핫플레이트가 없다면 중탕으로 녹여주면 된다.)
- 03 다 녹은 왁스의 온도가 60-80도 사이인지 측정한다.
- 04 알맞은 온도가 되면 오일을 혼합하여 준다. (오일은 왁스의 8-10% 정도)
- 05 오일이 잘 섞이도록 저어준 뒤, 왁스의 온도가 55도가 되면 캔들 용기에 천천히 부어준다.
- 06 왁스가 잘 굳어졌는지 확인 후, 심지를 알맞게 잘라준다.

TIP

왁스가 굳기 전에 심지가 가운데로 알맞게 위치할 수 있도록 나무 젓가락 등을 이용해 고정하면 더욱 반듯하게 완성할 수 있다.
 소이캔들은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축현상이나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드라이기나 열풍기로 표면을 녹여서 다시 굳혀주면 매끈해 진다.



al,thing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만들어 냅니다.
 주로 직물을 사용하여 옷, 향초, 작은 소품을 짓고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 옷을 입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향초 만들기는 열띤에서 진행한 향초 워크숍의 과정을 촬영·편집한 것입니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 향초 만들기는 워크숍을 통해 배워두면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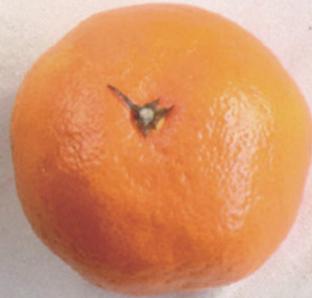
al, thing

Add 서울 용산구 한남동 593-71
 Tel 02. 796. 5004
 Open 평일 11:00 - 20:00
 주말 11:00 - 19:00
 Homepage www.al-thing.com



겨울이면 생각나는 맛

이불 속에서 나가기 힘든 계절이 돌아왔다.
목도리를 돌돌 두르고 꽁꽁 언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거리를 걷다보면,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의 풍경을 볼 수 있다.
길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겨울의 맛들을 소개한다.



굴

겨울냄새를 머금은 듯한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굴.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집안에서 굴을 한 바구니 담아다가
TV를 보면서 까먹으면 손끝이 노랗게 변해도 웃음이 난다.

군밤

구수한 맛에 아삭거리는 식감이 일품인 군밤은
겨울밤. 길거리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뜨끈뜨끈한 군밤봉지를 받아들면
그 따뜻함에 손도 녹고 시린 마음마저 녹는다.

군고구마

겨울이 오고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
다름 아닌 군고구마 장수가 아닐까 싶다.
예전만큼 자주 볼 수 없는 풍경이 되긴 했지만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코트 안에 품고
가족들과 호호불어 먹었던 그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한다.



호빵

쌩쌩부는 찬바람이 두 뺨을 스치면 자연스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빵이 생각난다.
새하얀 빵 속에 숨은 달콤한 팥앙금이 가득한 호빵과 함께
모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꽃을 피워보자.



붕어빵

추운 겨울 길 모퉁이에 가지런히 늘어선 붕어빵들이 '어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듯 하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풍경에서 푸근함이 느껴지며 꼬리부터 먹든지, 머리부터 먹든지 고민하는 재미도 있다.
뜨끈하고 달콤한 붕어빵이 있어 올 겨울도 행복하다.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노래

차가운 공기, 시린 바람, 평평 내리는 눈으로 꽁꽁 얼어 붙은 겨울.

장갑, 내복 외에 또 하나의 필수품은 노래가 아닐까 싶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과 이 겨울에 듣기 좋은 노래로 몸과 마음을 녹여보자.



눈오던 날
재주소년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소년감성으로 주목받은 모던 포크 듀오 재주소년의 2003년 데뷔앨범 수록곡 '눈 오던 날'. 누구나 마음 한켠에 품고 있을 법한 유년시절의 아련하면서도 순수했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흘날리는 눈발마저도 너무나 따스하게 만드는 진솔한 가사와 서정적인 기타 선율이 듣는 내내 두근거리는 울림을 준다.



St. Patrick's day
John mayer

실력있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John mayer의 1집 수록곡으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엔 누구도 혼자있길 원하지 않고 1월엔 너무나 추울테지만'이라는 가사와 함께 St. Patrick's day가 있는 3월까지도 연인과 헤어지지 않고 꼭 함께이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달콤한 곡. 속삭이듯 읊조리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기타소리에서 겨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In to the storm
Big Baby Driver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움추리게할 때, 따사로운 햇살같은 멜로디와 구름같이 편안한 빅 베이비 드라이버의 목소리는 잔잔한 위안이 되어준다. 드라마 OST로도 삽입된적이 있는 이 곡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한다.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의 연주가 어우러져 사랑스러우면서도 따뜻하게 들린다.



New year
Pat Metheny Unity Band

60이런 나이가 무색할만큼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다채로운 퓨전 재즈를 보여주는,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 Pat Metheny Unity Band는 그의 기타 사운드를 중심으로 드럼, 베이스, 색소폰의 사운드를 더해 풍성하면서도 조화로운 재즈 연주를 선보인다. 그 앨범의 첫 곡 'New year'를 들으며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HAPPYstlm

HAPPYstlm은 사기와 유리를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 텍스타일, 주얼리 등을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스웨덴의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나무와 줄기, 꽃과 같은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텍스타일 제품을 비롯하여 주방용품, 악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작은 부분까지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디자인 브랜드입니다.

※ HAPPYstlm의 제품을 마켓앤에서 만나보세요!

FUTAGAMI

황동을 주 소재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일본의 금속 공예 브랜드입니다.

FUTAGAMI는 표면을 닦거나 도금, 도장을 하지 않아, 황동 표면 그대로의 질감이 살아 있고
주조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흔적 등을 간직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 FUTAGAMI 제품을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프리미엄 홈스타일링전시 | 홈·테이블데코페어
home·table deco
 fair 2014



부산 bexco | 6. 19 - 6. 22

대구 exco | 10. 16 - 10. 19

서울 coex | 12. 11 - 12. 14

전시구성

홈테리어/데코 테이블세팅/센터피스
 럭셔리가구/가전 힐링/크리스마스시즌
 아트리빙/갤러리 플라워/애니버서리
 주방/테이블웨어 해외디자인기획전

동시행사

테이블데코 공모전
 인테리어트렌드 및 공간제안
 메가트렌드 컬러라이프 세미나
 오픈 리빙클래스

문의

home-table deco fair 사무국
 TEL 02-555-7153
 FAX 02-556-9474
 www.hometabledeco.com



주최 **K.FAIRS LTD. CA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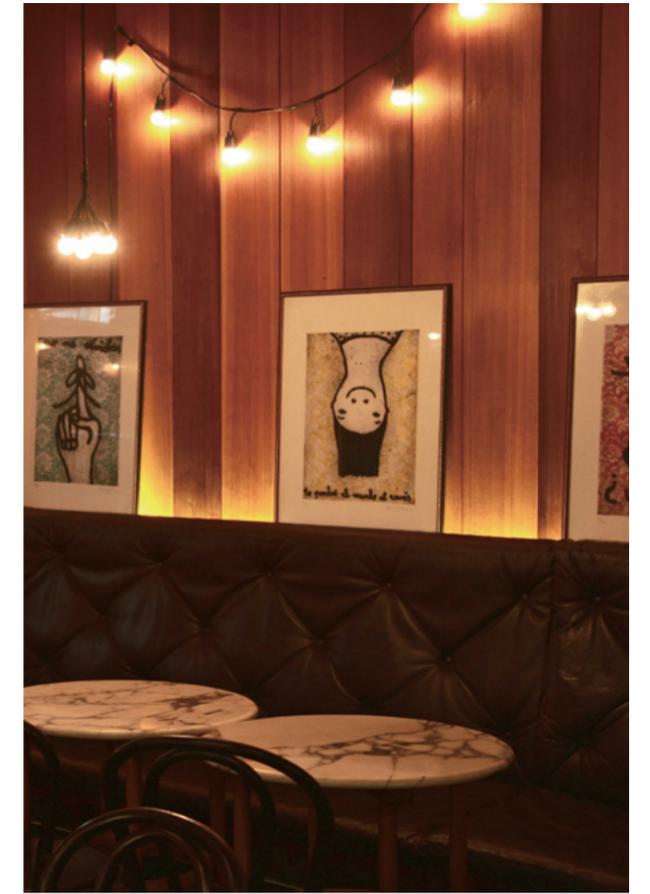
후원 대구시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사)한국식환경디자인포럼 공식미디어 Noblesse



BOULANGERIE
LE **ALASKA**

빵은 한 끼 식사, 또는 간식으로도 나무랄 데 없다. 노릇하게 구워져 그
 익한 냄새로 유혹하는 빵들, 진열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좋아하는 빵을
 고르면 금세 한 바구니가 된다. 무염버터를 사용하여 소화가 잘되는 건
 강한 빵 부터 달콤한 맛에 행복해지는 빵까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빵들이 가득한 르알래스카를 소개한다. 생생부는 찬바람에 공공 언 몸
 이 따뜻한 공간에서 차 한 잔과 달콤한 빵들로 사르르 녹아 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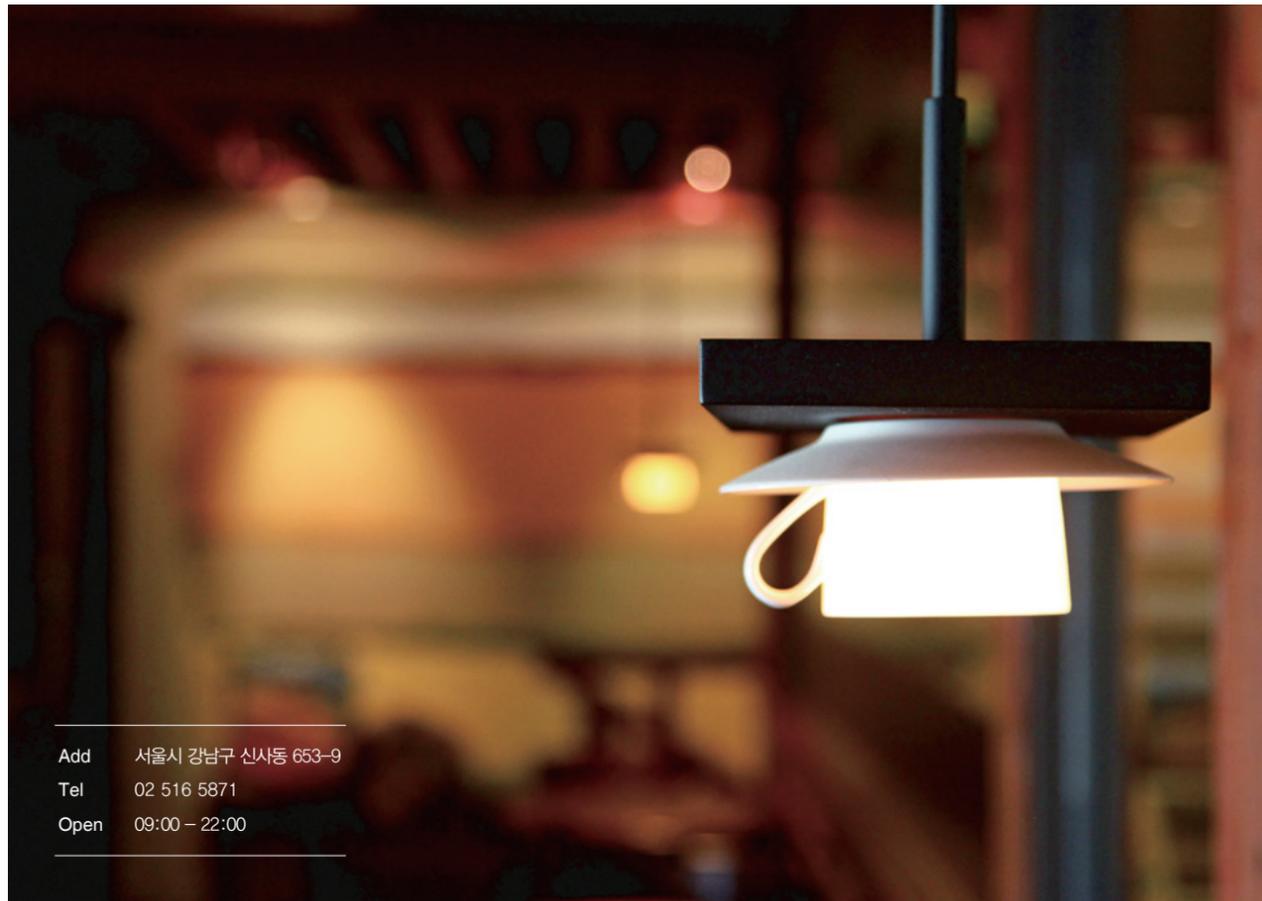


나무와 벽돌 소재의 아늑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유럽풍의 다양한 빵들과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르 알래스카. 르고르동 블루와 동경제과학교 출신 파티시에들이 모여 빵을 만드는 곳으로 무염버터를 이용해 페스츰리와 크로와상, 일본식 빵과 더불어 다양한 빵들을 선보인다. 또한, 즉석으로 만드는 각종 샌드위치와 커피, 음료 등이 있어 브런치를 즐기기에 좋다. 얼음을 눈처럼 곱게 갈아 등벙 올려주는 아이스 음료들도 인기메뉴로 손꼽힌다.



- 01 통감자, 시금치, 그뤼에 치즈를 넣어 만들어 식사대용으로 좋은 시금치 감자빵
- 02 부드러운 빵에 통올리브와 모짜렐라 치즈, 파마산 치즈가루로 담백함을 더한 올리브빵
- 03 곱게 간 얼음을 등벙 올린 아메리카노
- 04 견과류 4가지와 카라멜이 어우러진 르알래스카의 오리지널리티 빵인 슈리넛
- 05 5가지 베리즙만으로 반죽하여 더욱 깊은 과일맛을 느낄 수 있는 담백한 매니베리
- 06 초코가 잘 어우러진 바삭하고 달콤한 빨기끼레





Add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3-9
 Tel 02 516 5871
 Open 09:00 - 22:00



LYON은 1901년에 설립된 미국의 제품 제조회사입니다.
 철재를 소재로 한 고품질의 보관함, 산업용 저장 및 작업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철재 시물함을 비롯하여 선반과 캐비닛들은 학교, 기관, 선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LYON의 제품들을 마켓एम에서 만나보세요

LYON® WORKSPACE PRODUCTS
 MADE IN U.S.A.

추운 겨울에 더 따뜻한, 고베 아리마 온천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온천!
 효고현 고베시에 위치한 아리마 온천은 고즈넉함이 가득한 시골 마을입니다.
 일본 최초의 탄산수인 아리마 사이다, 탄산맛 센베이,
 아리마 술로 만든 사케 만주 등이 유명합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아리마 온천으로 오세요!



꽃코산에서 바라본 아리마 마을



진노유(온탕)



아리마 유허온천 전경



일본 전통 료칸

아리마 온천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온천지 중 하나로, 일본의 3대명천(三大名泉)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온천입니다.
 관서지방에 위치한 아리마 온천은 특히 고토, 오사카, 고베, 히메지를 방문하는 분들의 여행지로 최적의 명소입니다.
 화산이 없는 지역이지만, 신기하게도 지하 200m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아리마 온천은 지구 내부 상부 맨틀층의 광물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온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염분 농도를 자랑하는 온천수는 추운 겨울에도 몸의 따뜻함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아리마만의 특별한 온천수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면, 겨울 일미인 마쓰바가니(게), 고베 비프를 넣은 나베(찌개) 등 다양한 별미가 가득합니다.

일본 효고현 고베시 기타구 아리마초 790번지

www.arima-onsen.com

(사)아리마온천관광협회

有馬温泉観光協会

有馬温泉

ARIMA CIDER TEPPON WATER

천년 역사를 가진 일본 최초의 사이다,
아리마 사이다를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1% for the planet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인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추나드와 블루 리본 플라이즈의 대표 크레그 매튜스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회원 기업들은 연간 매출의 1%를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2,20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38개국에서 2,500개 이상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 for the planet은 자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기업들의 동맹입니다. 이에 참가하는 기업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지구 환경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지위를 확립해 나갑니다.



Jieldé

Hand made in France since 1950

www.jielde-korea.com